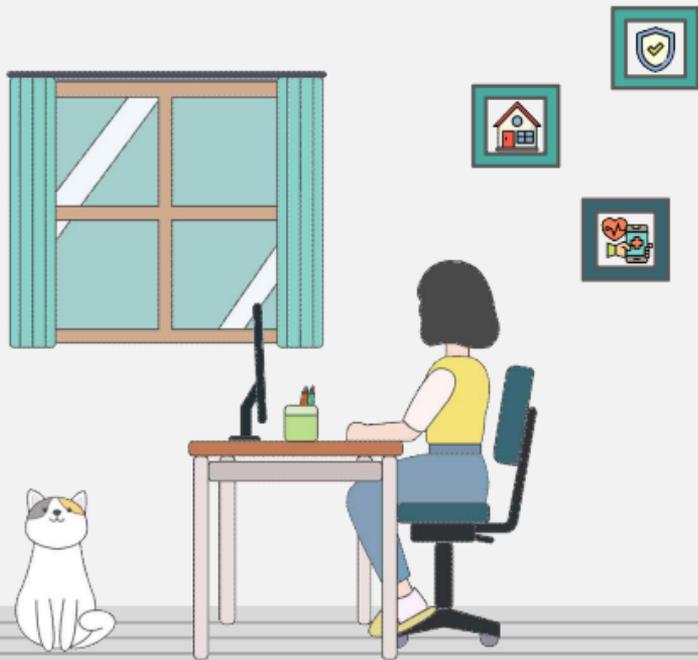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학술 연구





연구 개요

연구명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학술연구

연구기간

2021.8.2 ~ 2022.2.28(7개월)

발주처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연구 내용

실태조사

- 1인가구 발생현황 및 사례분석
- 실태조사 및 분석

주거 심층조사

- 1인가구 밀집지역 주거환경 분석



연구진

수탁기관

서울연구원(1인가구/청년연구센터)

연구책임 안현찬(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승연 (연구위원)

변금선 (부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남원석 (연구위원)

박은숙 (초빙연구위원)

최현임 (초빙부연구위원)

박민진 (연구위원)

문진영 (연구위원)

박지선 (위촉연구위원)

0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1 조사 개요
- 1.2 기초 분석
- 1.3 세대별 분석
- 1.4 유형화 분석
- 1.5 한계와 과제

서울시 1인가구, 총 3,079명 대면조사 실시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1인가구

표본크기

- 목표표본: 3,000가구
- 유효표본: 3,079가구
- 남성 1,444 (46.9%)
- 여성 1,635 (53.1%)

표본설계

비례할당

- 성별
- 연령별
- 권역별

조사방법



대면 조사
(온라인특별면담형성해소)

✓ 총 10개 영역, 500개 문항

구분	질문 내용	문항 수
일반사항	연령, 성별, 학력, 건강보험 가입여부, 종교, 가족관계, 동거/동학 여부 등	20
1인가구의 삶	1인가구 생활 기간, 1인 생활 이유, 생활 시 어려운 점, 심리적 어려움, 1인 생활의 즐거운 점, 반려동물, 1인 생활의 불편한 점, 1인 활동 시 편하지 않은 행동, 여가활동, 1인 생활을 위한 준비정도 등	34
경제활동	근로상황, 주된 일자리, 퇴직 등	14
복지	소득, 생활비, 생활비 지원여부, 생활비 부족 여부, 자산과 부채, 재테크, 돌봄 등	40
주거	주택유형, 거주위치, 주거지 선택 시 중요 요인, 주택의 전용면적, 방 갯수, 주택 구입 자금 방법, 관리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상태, 공유 주택 등	79
안전	동네 안전성, 범죄, 범죄 피해 두려움 정도, 범죄피해 경험 등	37
건강 및 식생활	건강상태(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신체활동, 식생활, 혼밥 정도 등	51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정도, 외로움 정도, 외로울 때 하는 행동, 공공활동 참여 경험 등	54
인식	만족도, 차별/무시, 편견 경험, 제도적 불이익, 1인가구 생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험, 1인가구 지속 정도, 향후 가구 거주형태 등	44
정책수요	1인가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인가구 세부 정책별 필요성, 인지도, 이용정도, 1인가구 포털 이용 여부, 1인가구 정보 획득 경로 등	127

0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1 조사 개요
- 1.2 기초 분석
- 1.3 세대별 분석
- 1.4 유형화 분석
- 1.5 한계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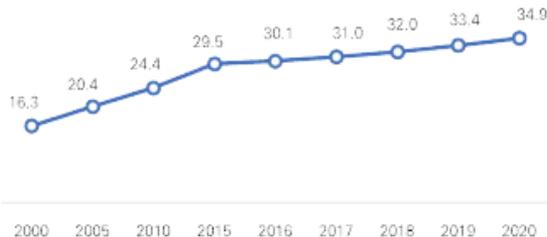
서울시 1인가구 139만 명, 2017년보다 여성, 청년, 60대 이상 다소 늘어

(1인가구 증가) 2020년 서울시 1인가구는 139만 명, 전체 가구 대비 비율은 34.9%로 지난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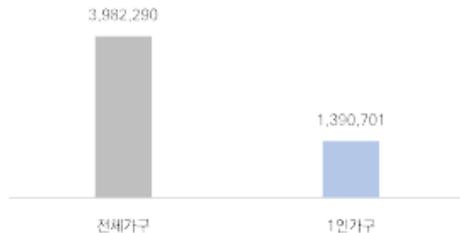
(성별) 남성 46.9%, 여성 53.1%로 2017년에 비해 여성이 2%p 늘어

(세대별) 청년 48.9%, 중장년 32.7%, 노년 18.5%이고, 2017년에 비해 20대(2.8%p), 60대(1.7%p), 70대 이상(1.5%p)이 다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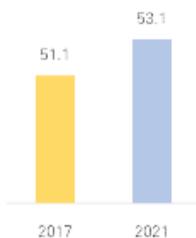
서울시 1인가구 비율 : 인구주택총조사



2020 서울시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수(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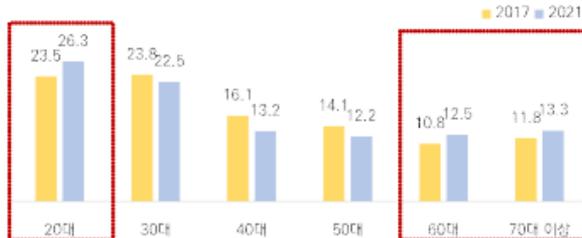
여성 1인가구 비율(%)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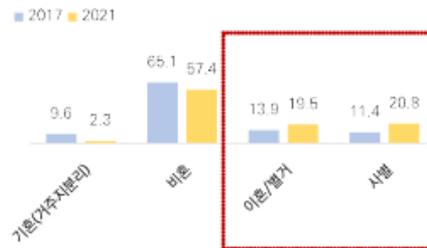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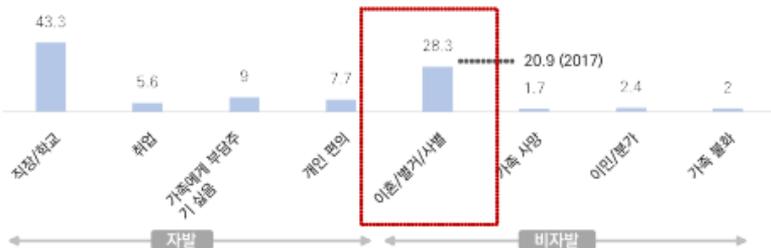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자발적 1인가구와 지속기간이 늘어나

(혼인상태) 비혼 57.4%, 사별 20.8%, 이혼/별거 19.5%, 기혼(거주지 분리) 2.3%로, 2017년에 비해 이혼/별거는 5.6%p, 사별은 9.4%p 증가
 (1인가구 형성 원인) 1인가구 형성 원인은 직장 또는 학교 접근성 43.3%, 혼인상태 변화 28.3%,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9.0% 순
 (1인가구 지속) 1인가구 지속 기간은 평균 5년 8개월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기간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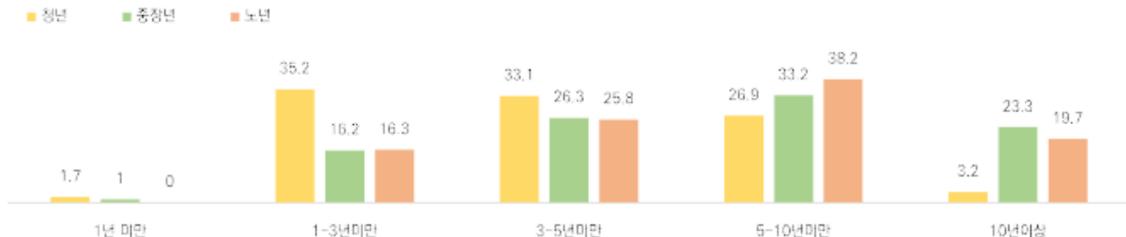
혼인상태(%)



1인가구 형성 원인(%)



1인가구 지속기간(%)



1인가구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고, 1인가구를 지속하고 싶은 비율은 늘어나

(삶의 만족도) 1인가구의 86.2%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2017년에 비해 13.0%p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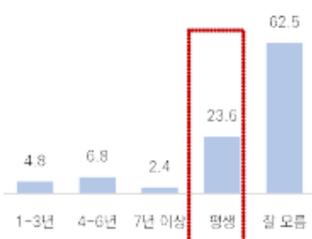
(미래전망) 1인가구 예상 유지 기간은 평생이 23.6%로 가장 많고, 향후 희망하는 가구형태는 지금처럼 혼자가 36.8%로 2017년에 비해 13.1%p 증가

(삶의 변화) 1인가구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경제, 주거, 건강, 여가, 안전,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는 비율이 51~75%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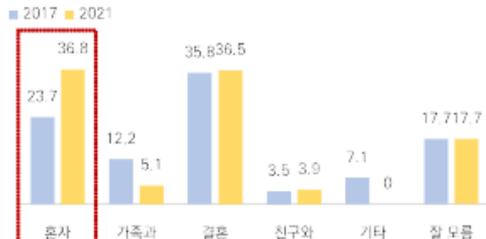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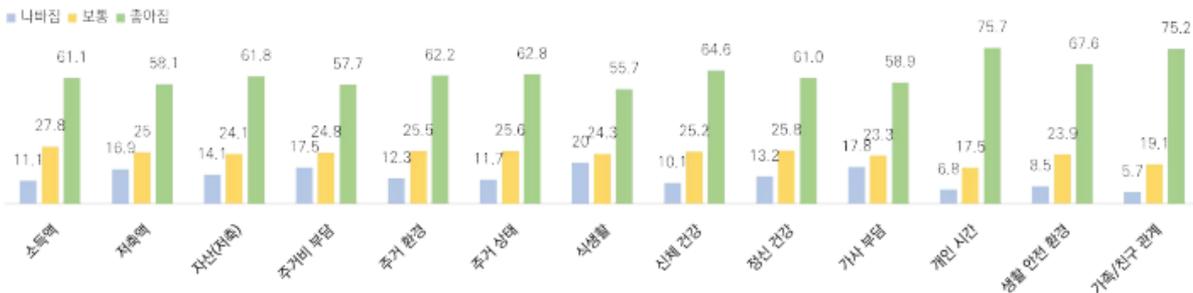
1인가구 예상 유지 기간(%)



향후 원하는 가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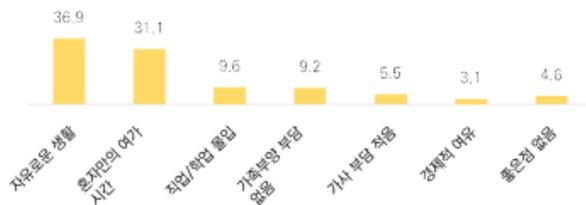
1인가구로 생활한 이후 삶의 변화(%)



단독 생활의 주된 장점은 자유로움, 힘든 점은 위급 상황 대처

(단독 생활 장점) 95.4%는 혼자 생활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응답, 자유로운 생활 36.9%, 혼자만의 여가 활용 31.1%로 가장 많아
 (단독 생활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35.9%로 가장 많고, 2017년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은 크게 줄고 위급상황 대처가 크게 늘어
 (생활 불편 해결 방법) 1인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55.2%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도움을 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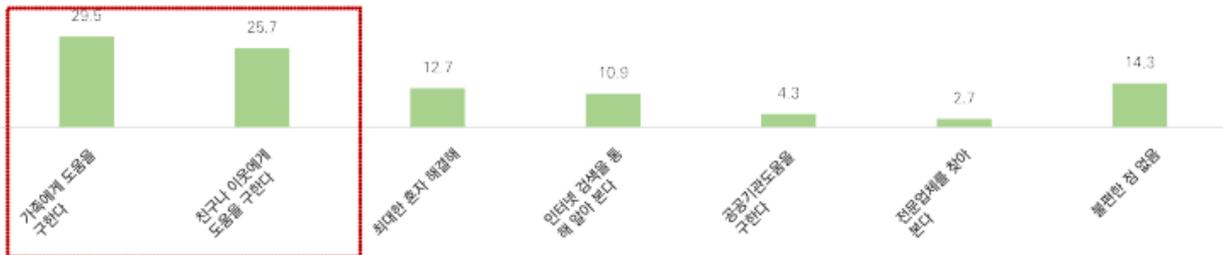
1인가구의 장점(%)



1인가구로 곤란하거나 힘든 점 : 1순위 (%)



1인가구의 불편함 해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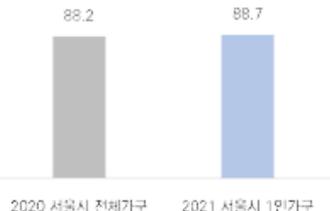
10명 중 9명 취업자지만 불안정 고용이 많아서, 경제 분야 정책 수요 높아

(고용률) 서울시 1인가구 중 취업자는 88.7%로 2020년 서울시 전체가구 고용률 88.2%와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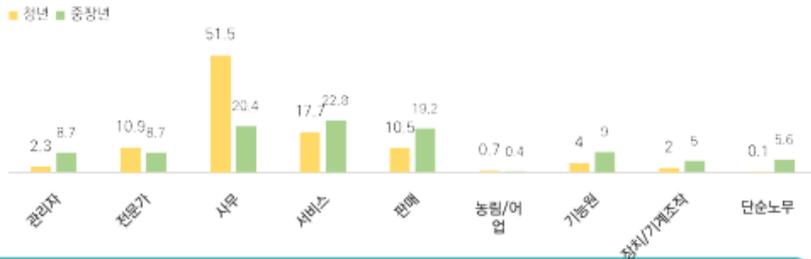
(직종) 중장년은 청년보다 사무종사자 비중이 작고,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등 저숙련 직종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

(근로 형태)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74.5%, 자영업자 13.3%, 임시직근로자 8.0%, 일용직 근로자 3.7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용률(%)



청년/중장년 직종(%)



근로 형태(%)

※ 공공일자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2,7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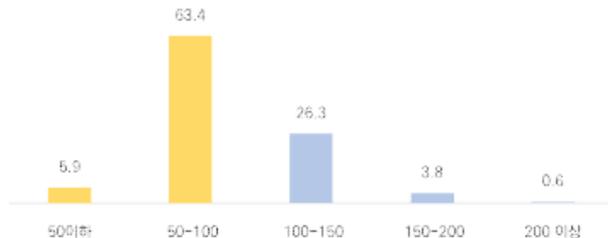
다인가구보다 소득 낮아 사적 이전 많이 받고, 중장년은 사적 이전 부담도 해

(월평균소득) 서울시 1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19만원으로 다인가구 균등화 월소득 305만원보다 낮고, 69.3%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분포
 (생활비 부족 경험)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1인가구는 11.8%이며, 가족친지, 친구 이웃에 빌리는 사적이전에 기대거나 72.5%, 은행 대출 받아(26.0%)
 (중장년 사적이전) 중장년은 사적이전 비율이 다른 세대 보다 높게 나타나 중장년의 경우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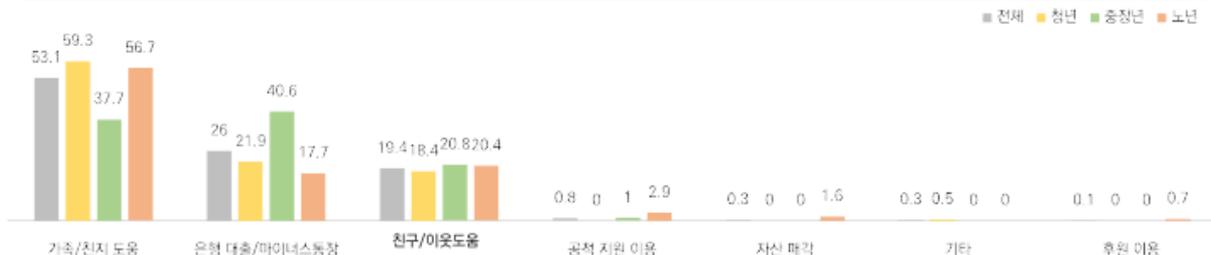
월평균소득(만원)



중위소득 구간(%)



생활비 부족 해결방법 : 1순위(%)



1인가구 자산 빈곤율 18.2%, 부채 상환 부담도 높은 수준

(평균 부채) 평균 부채는 2,267만원으로 2021년 전국 1인가구 평균 부채 3,174만원 보다 낮은 수준

(자산빈곤율) 자산빈곤율은 18.2%, 청년이 27.0%로 가장 높으며, 2021년 전국 1인가구(소득 1분위) 자산빈곤율 17.3% 보다 높은 수준

(부채 상환 부담) 부채가 있는 1인가구 과반수가 부채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년이 53.3%, 중장년이 51.6%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자산 규모(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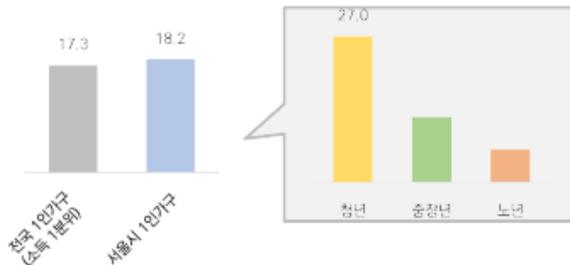


부채 규모(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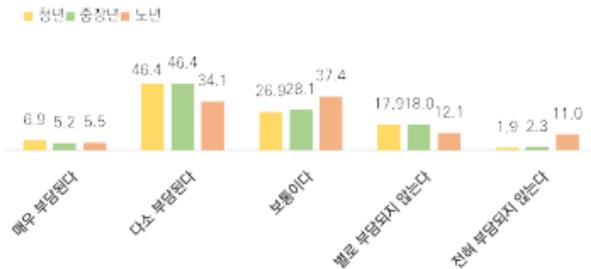


자산빈곤율(%)

※ 자산빈곤율 : 순자산이 의료급여 기준선 3배 미만인 경우



부채 상환 부담(%)



주거 선택 요인은 2017년에 비해 주거비용보다는 주거의 질을 중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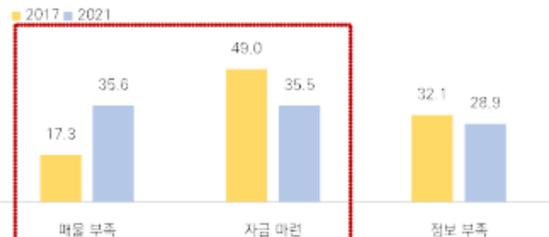
(주거선택 요인) 2017년에 비해 거주경험(+6.3%p), 주택상태(+7.5%p)는 많고, 주거비 부담(-3.5%p)은 적어

(주거선택시 어려운 점) 2017년에 비해 매물부족(35.6%)은 약 2배 많고, 자금 마련(-13.5%p)과 정보 부족(-3.2%p)은 적어

주거지 선택 시 중요요인(%)



주거선택 시 어려운 점(%)



전문가 의견(박미선 박사, 국토연구원)

“주거비 부담은 줄고 매물 부족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 자금지원 확대와 홍보 효과(공정 요인), 주택가격 상승(부정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추정 ”

주거수준은 2017년보다 개선, 그러나 다인가구보다 열악

(주택유형) 단독주택(51.1%)이 가장 많고 다인가구에 비해 아파트(42.8%)는 더 적고 단독주택(26.9%)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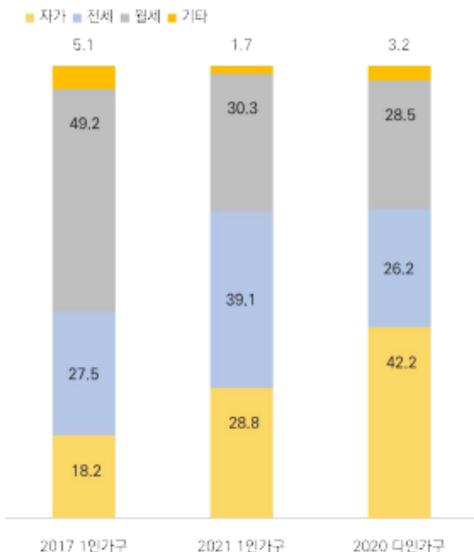
(점유형태) 전세 39.1%, 월세 30.3%, 자가 28.8% 순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자가는 낮고 월세는 많지만 2017년에 비해 전세, 자가 비율이 늘어

(평균 사용면적) 52.6㎡으로 2017년 47.4㎡보다 커졌으나 다인가구 61.2㎡에 비해 8.6㎡ 작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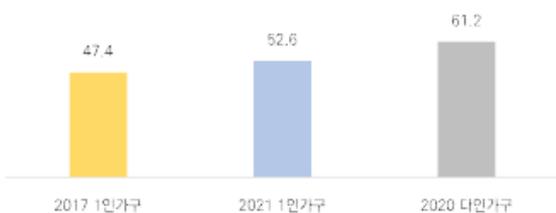
주택 유형(%)



점유형태(%)



평균 사용면적(㎡)



주거비는 다인가구보다 외부 조달, 과부담 비율이 높아(특히 청년층)

(주택가격 중위값) 자가와 전세보증금은 연령이 많을수록, 월세보증금은 청년이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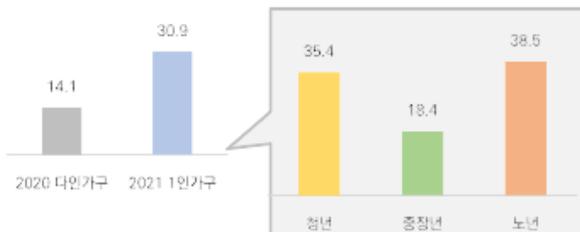
(주거비 과부담 비율)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30.9%로 서울시 다인가구보다 16.8%p 더 많고 청년 35.4%와 노년 38.5%에서 비율이 더 높아

(주거자금 마련) 본인자금(94.8%/85.5%) 외 금융기관 대출(43.6%/34.8%), 상환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지인 도움(17.8%/34.0%) 순

거주주택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 중위값(만원)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주택가격	보증금	보증금	월세
전체		50,000	22,000	3,500	40
세대별	청년	35,000	21,000	3,500	40
	중장년	50,000	23,000	3,000	40
	노년	55,000	23,000	1,500	30

임차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비율(RIR 25% 초과 또는 HCIR 30% 초과, %)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 방법(%)

■ 구입자금 ■ 임차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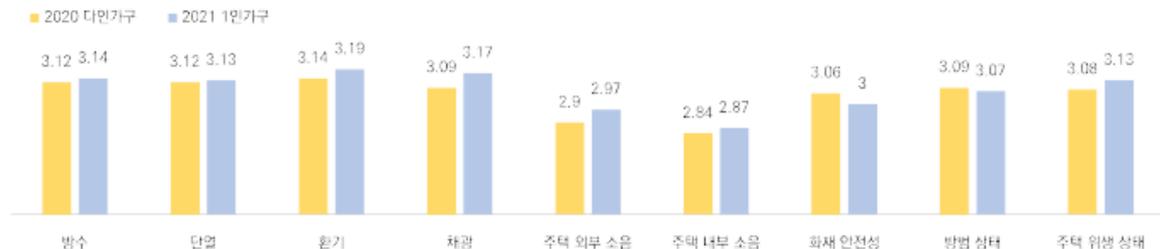


청년은 임차보증금 마련 방법 중 '상환의무 없는 가족이나 지인 도움'이 42.1%로 중장년(2.4배), 노년(2배)보다 월등히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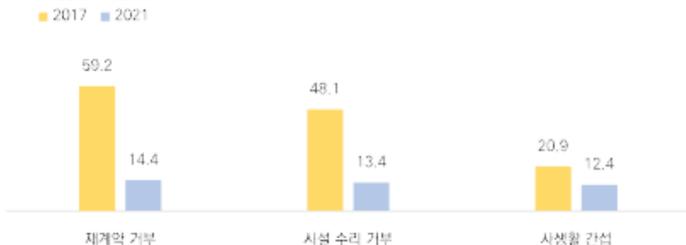
주택성능 만족도는 다인가구와 비슷, 세입자로 겪은 불안은 2017년보다 감소

(주택성능 만족도) 환기(3.19)와 채광(3.17)이 가장 높고, 외부 소음(2.97)과 내부 소음(2.87)이 가장 낮는데 대체로 서울시 다인가구와 비슷
(세입자 불안 및 경험률) 재계약 거부 14.4%, 시설 수리 거부 13.4%, 사생활 간섭 12.4%로 2017년에 비해 8.5~44.8%p 정도 크게 줄어

주택성능 만족도(4점 만점)



세입자 불안 경험(%)



[2021년 단독조사 문항]

계약기간 중 퇴거 요구 : 14.0%

재계약시 무리한 임대료 상승 및 전월세 전환 요구 : 17.2%

임대보증금 미반환 :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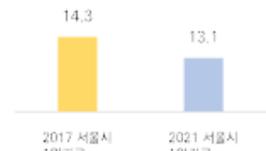
안전 두려움은 다인가구보다 양호, 범죄 위험 장소는 주로 옥외공간

(안전감) 생활안전에 관한 일반적 두려움은 다인가구보다 다소 적지만, 야간 골목길 보행에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껴(15.5%)

(장소별 범죄 두려움) 범죄 위험 장소는 귀갓길(25.5%), 방치된 공간(21.0%), 주택 외부 공간(17.1%) 등 주로 옥외공간

(범죄안전시설 설치율) 집 주변 외부조명(70.6%), 특수잠금장치(65.1%) 순이고, 공동 시설은 아파트 거주자가, 개인 시설은 여성 설치율이 높아

일상생활 범죄 피해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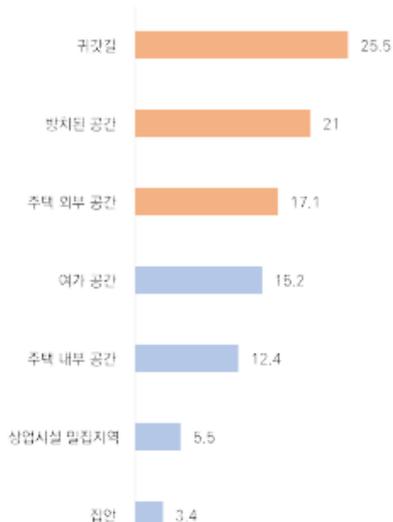
야간에 집안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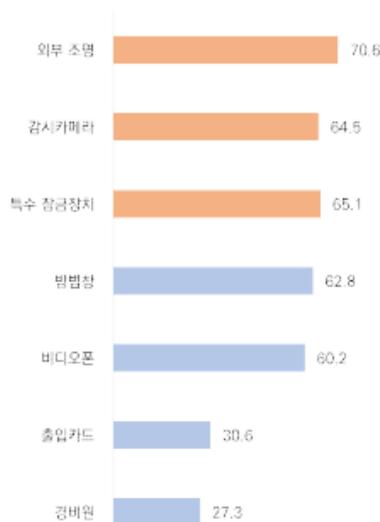
야간 골목길 보행 두려움(%)



범죄 위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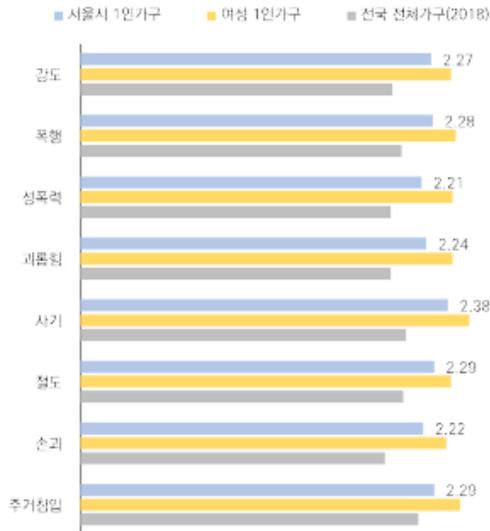
범죄안전시설 설치율(%)



다인가구보다 모든 범죄의 피해 두려움 크고, 폭력범죄 피해율은 약 3배 높아

(범죄별 피해 두려움) 사기(2.38점), 주거침입(2.29점), 절도(2.29점), 폭행(2.28점) 순, 2018년 전국 전체가구에 비해 모든 범죄 0.2점 이상 높아
 (범죄피해율) 폭력범죄는 1.5%, 재산 범죄는 1.4%로, 2018년 전국 범죄피해율에 비해 각각 3배, 0.5배 수준
 (성별/세대별/지역별 차이) 여성, 비아파트 지역, 동남권 등이 범죄 피해 두려움이 높고, 세대별로는 청년은 폭력범죄, 노년은 재산 범죄를 더 두려워해

범죄별 피해 두려움(5점 만점)



범죄피해율(발생건수 기준, %)



[범죄피해율]

- 1)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각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함
- 2) 전국 전체가구 범죄피해율(추정) = 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 3) 2021 서울시 1인가구 범죄피해율(추정) = 범죄피해건수/3,07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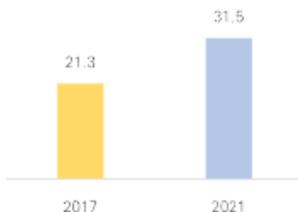
우울증 유병률은 전체가, 미충족 의료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

(신체건강)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2017년보다 증가했고, 노년 1인가구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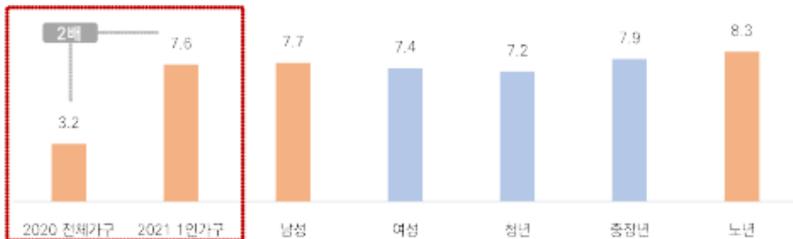
(정신건강) 우울증 유병률은 7.6%로 2020년 서울시 우울증 유병률 3.2%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특히 남성 7.7%, 노년 8.3%로 높아

(의료 이용) 1인가구의 미충족 의료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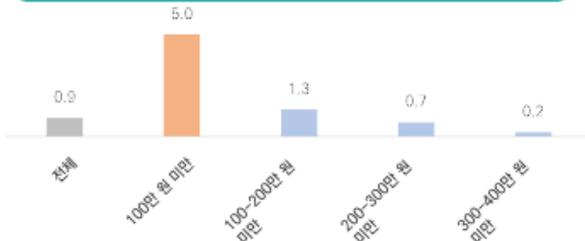
만성질환 유병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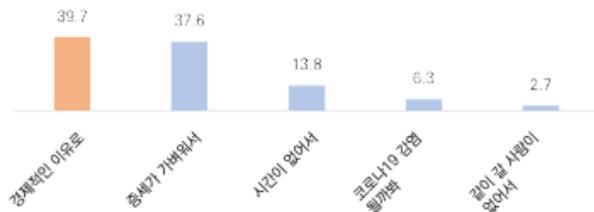
우울증 치료 필요(%)



소득수준대비 미충족의료율(%)



미충족의료 이유(%)



1인가구의 89.9%는 먹거리 안정성 확보, 그러나 다인가구에 비해 비율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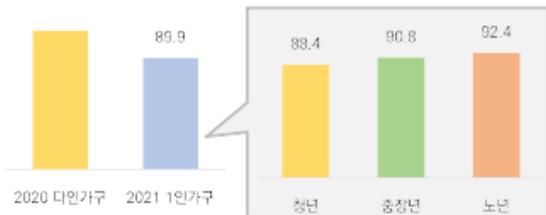
(먹거리 안정성) 2020년 서울시 다인가구 99.7%에 비해 먹거리 안정성 확보 비율 낮아

(식사 해결방법) 여성, 노년 1인가구는 직접 음식을 조리해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 청년 1인가구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비율 높아

(결식 이유) 노년 1인가구는 혼자 먹기 싫어서 식사를 거른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남성과 청년 1인가구는 조리방법을 몰라서 라고 응답

먹거리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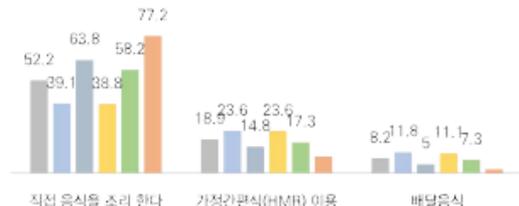
※ 먹거리 안정성: 충분하고 다양하게 먹거나(양+질), 충분하게 먹는(양) 사람의 비율



구분	먹거리 안전성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지 못했음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지 못했음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는 먹지 못했음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는 먹지 못했음			
전체	89.9	57.3	32.6	8.7	1.4	
세대별	청년	88.4	52.4	36.0	9.9	1.6
	중장년	90.8	62.2	28.6	8.3	0.9
	노년	92.4	61.5	30.9	5.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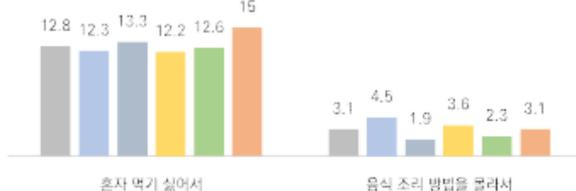
식사 해결방법(%)

■ 전체 ■ 남성 ■ 여성 ■ 청년 ■ 중장년 ■ 노년



결식 이유(%)

■ 전체 ■ 남성 ■ 여성 ■ 청년 ■ 중장년 ■ 노년



1인가구의 13.6%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62.1%가 외롭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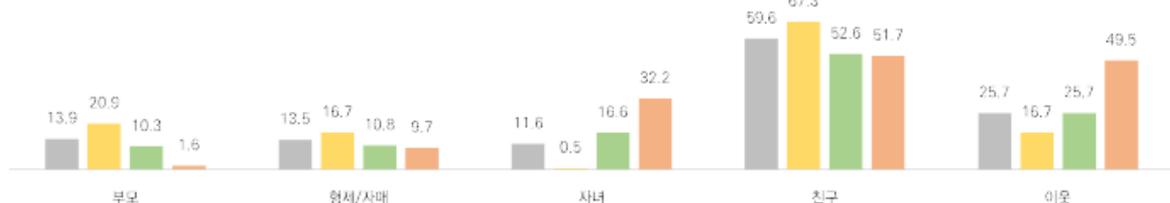
(교류 대상) 전체적으로는 친구, 가족, 이웃 순으로 주로 만나, 청년은 친구와 부모, 노년은 이웃과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고립) 남성 1인가구 14.4%와 중장년 1인가구 15.2%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로움) 남성 1인가구 63.4%와 중장년 1인가구 65.4%의 외로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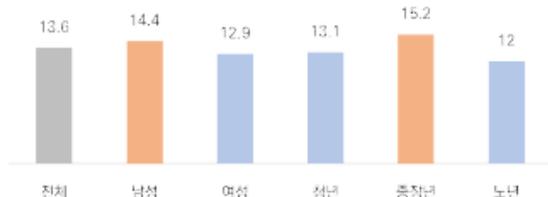
매일/매주 1회 이상 만나는 대상(%)

■ 전체 ■ 청년 ■ 중장년 ■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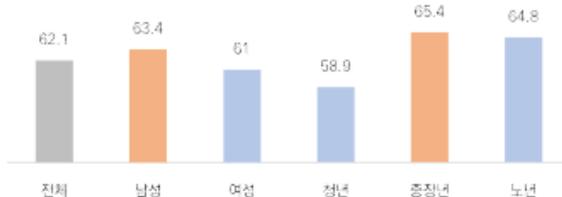
사회적 고립(%)

※ 사회적 고립: 몸이 아플 때, 위료가 필요할 때, 금전이 필요할 때 모두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외로움(%)

※ 외로움: 미국 UCLA 외로움 정도 척도 총점 43점 이상



1인가구의 보편화, 다인가구 대비 취약성, 1인가구 내 이질성 확인

인식과 생활

단독 생활 만족도와 지속의사 높아, 주된 원인은 개인적 자유, 위급 상황 대처 어렵지만 가족/지인 도움 구해

경제와 자립

고용률 높지만, 소득과 자산이 다인가구보다 적어 생활비 부족, 부채상환 부담을 많이 겪어

주거와 안전

주거수준이 높아졌지만 다인가구보다 열악하고 주거비부담 커, 주거지 폭력범죄 두려움/피해에 더 많이 노출

건강과 식생활

만성질환, 우울증, 먹거리 안정성, 식사 방식 등은 2017년, 다인가구 대비 모두 취약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는 낮지만, 외로움 많이 느끼고 아무런 대처 않는 비율도 적지 않아 관계망 위험성 존재

보편화

다인가구 형성 지원

1인가구로도 삶의 질 보장

취약성

분야별 취약성 집중(정책 중복)

다인가구 대비 취약성 집중(차별화)

경제, 관계망, 식생활, 살림

이질성

형성원인/성별/세대/소득별 차이 커

집단별 취약성과 수요에 맞춤 대응

안전(여성 청년), 외로움(비자발적 남성 중장년)

0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1 조사 개요
- 1.2 기초 분석
- 1.3 세대별 분석**
- 1.4 유형화 분석
- 1.5 한계와 과제

경제, 주거, 식생활 취약한 이행기 특성 강하고, 관계망 취약층 집중 지원 필요

(정책수요) 경제자립(41.0%), 주거안정(25.4%), 사회관계망(10.8%) 수요가 다른 세대보다 높고, 식사준비/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어려움도 더 커
 (세대 특성) 자발적 1인가구를 갖 시작해 일을 하지만 경제, 주거가 불안정한 이행기 특성 보여, 부모 도움을 많이 받지만 아닌 경우도 40%나 돼
 (정책 방향) 이행기 특성에 맞게 경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부모 도움을 못 받는 사회적 관계망 취약 청년 집중 지원이 필요

경제와 자립 상용직 비율은 제일 높지만 사회초년생이라 소득과 자산이 적고, 다른 세대보다 사적 이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아

주거와 안전 주택유형(단독/다세대), 면적(40㎡이하), 점유형태(월세), 주거비 과부담 비율 등 주거 전반이 다른 세대보다 취약

건강과 식생활 생애주기상 신체 및 정신건강은 가장 양호하지만, 먹거리 안정성과 식생활이 취약해 먹거리 관련 서비스 수요 많아

사회적 관계망 재직/재학율이 높아 사회적 고립도나 외로움은 매우 양호하지만, 미래 불안에서 비롯된 우울증 치료, 자살충동은 약간 높아

청년 1인가구의 분야별 주요 지표 취약도

경제와 자립	주거와 안전	건강과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근로형태(상용직 89.3%)	주거수준(주택/점유/면적)	만성질환 유병률(12.3%)	사회적 고립도(13.1%)
중위소득 50% 이하(2.4%)	주거비과부담(35.4%)	우울증 유병률(7.2%)	외로움(58.9%)
자산빈곤율(27.0%)	주택상태(3.09/4점)	먹거리 안정성(88.4%)	삶의 만족도(94.0%)
	목역범죄 피해율(1.3%)		

■ 매우 양호(1인가구 평균 and 다인가구 평균 이상)

■ 양호(1인가구 평균 or 다인가구 평균 이상)

■ 보통(1인가구 평균 and 다인가구 평균)

■ 취약(1인가구 평균 or 다인가구 평균 미만)

■ 매우 취약(1인가구 평균 & 다인가구 평균 미만)

이질성이 높은 세대, 원가족 부양 부담, 일상생활 어려움, 외로움 문제 심각

(정책수요) 경제자립(30.1%), 건강관리(22.2%), 주거안정(21.0%), 생활안전(17.2%), 사회관계망(9.5%) 순으로 다른 세대보다 수요가 분산
(세대 특성) 자발/비자발, 고음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이질성이 가장 높아, 세대의 평균적 경향으로 취약성 설명 어려워(유형화 분석으로 부연)
(정책 방향) 1인가구 지속 의사가 31.6%로, 경제/건강/생활(살림)/외로움 등의 문제가 노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 확충 필요

경제와 자립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세대지만, 가족 부양 부담(사적 이전) 크고, 공식/비공식 지원 부족해 경제취약층도 존재

주거와 안전 주거와 안전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비자발적(실직/이혼 등)인 경우 고시원,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층 존재

건강과 식생활 신체/정신 건강, 식생활 등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과도기로, 노년에 건강 악화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필요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가장 심각한 세대로, 정책 수요가 낮아도(사회적 시선 의식) 심리적, 정서적 지원 확충 필요

중장년 1인가구의 분야별 주요 지표 취약도

경제와 자립	주거와 안전	건강과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근로형태(상용직 68.4%)	주거수준(주택/점유/면적)	만성질환 유병률(38.5%)	사회적 고립도(15.2%)
중위소득 50% 이하(2.5%)	주거비과부담(18.4%)	우울증 유병률(7.9%)	외로움(65.4%)
자산빈곤율(12.0%)	주택성능(3.11/4점)	역거리 안정성(90.8%)	삶의 만족도(83.0%)
	목력범죄 피해율(1.5%)		

매우 양호(1인가구 평균 and 다인가구 평균 이상)

양호(1인가구 평균 or 다인가구 평균 이상)

보통(1인가구 평균 and 다인가구 평균)

취약(1인가구 평균 or 다인가구 평균 미만)

매우 취약(1인가구 평균 & 다인가구 평균 미만)

노인 전체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 취약층은 경제, 주거 지원 필요

(정책수요) 건강관리(50.6%)가 청년(4배), 중장년(2배)보다 월등히 높고, 먹거리 안정성은 높지만 혼밥이 어려워 식사 관련 사회적 관계망 수요 높아
 (세대 특성) 생애주기상 경제, 주거 등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는 건강,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등 여생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은 욕구가 뚜렷
 (정책 방향) 노인 1인가구 전체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 연계 지원(소셜 다이닝), 취약층은 경제와 주거 지원을 추가하는 접근 필요

경제와 자립

고용, 소득은 낮는데 자산 빈곤율은 양호한 원인은 장기 근로 은퇴자와 빈곤 노인이 함께 있기 때문

주거와 안전

원가족과 살던 주거의 수준이 양호한 비율이 높고, 소득과 신체쇠약으로 주거비 과부담과 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과 식생활

생애주기상 건강과 식생활이 가장 열악하지만, 오랜 단독 생활과 살림 경험으로 식생활은 다른 세대보다 비교적 양호

사회적 관계망

세대 특성상 가족/이웃과의 교류가 가장 많은 세대로, 사회적 고립도와 외로움은 비교적 양호하나, 삶의 만족도는 낮아

노년 1인가구의 분야별 주요 지표 취약도

경제와 자립	주거와 안전	건강과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근로형태(상용직 19.6%)	주거수준(주택/점유/면적)	만성질환 유병률(70.0%)	사회적 고립도(12.0%)
중위소득 50% 이하(21.1%)	주거비과부담(38.5%)	우울증 유병률(8.3%)	외로움(64.8%)
자산빈곤율(6.0%)	주택성능(3.04/4점)	먹거리 안정성(92.4%)	삶의 만족도(71.4%)
	목역범죄 피해율(2.5%)		

매우 양호(1인가구 평균 and 다인가구 평균 이상)

양호(1인가구 평균 or 다인가구 평균 이상)

보통(1인가구 평균 and 다인가구 평균)

취약(1인가구 평균 or 다인가구 평균 미만)

매우 취약(1인가구 평균 & 다인가구 평균 미만)

0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1 조사 개요
- 1.2 기초 분석
- 1.3 세대별 분석
- 1.4 유형화 분석
- 1.5 한계와 과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해 자발성, 안정성 2개 차원에 따라 4개 유형 설정

기존 1인가구 유형화

- 특징 현상/집단을 설명하는 학술적 유형화
- 단일 요인으로 분류, 한 세대만 복수 유형화
- 정책적 활용 위해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요인에 따른 유형화 필요

연구자	유형 구분				
벤미리 외(2009)	골드족	산업예비군		불인한독신자	실버세대
반정호(2014)	의료비 집중형	주거비 집중형	교통비 집중형	교육비 집중형	생활비 집중형
김석호 외(2018)	골드싱글	화이트싱글	노마딕싱글	불안한 독신자	실버싱글
김현미(2017)	안전자립 노인	관심필요 노인	위기 노인	취약노인	
기타	기러기 가족, 청년니트족				

1인가구 유형화

자발성

자발적

직장, 학교와의 거리/취업 준비 가족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아서/편의와 자유

비자발적

이혼, 별거, 사별/부모, 형제자매 사망 구성원 이민/이사, 분가/가족 분화

안정성

안정

상용직 임금근로자+자가/전세 거주자

불안정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또는 월세거주자

자발·안정형
(독립형)비자발·안정형
(고립형)자발·불안정형
(유목형)비자발·불안정형
(위기형)

전문가 자문의견

최현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영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기존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유형화에서 벗어나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시도로서 의미 있음
-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유형에 따른 취약성이 명료하게 드러나 정책 접목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함
- 자발성은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이나, 향후에는 원인 접근이 아닌 상태 접근을 적용해볼 것 제안함

전체는 유목/독립형, 청년은 유목형, 노년은 고립형이 많고, 중장년은 분산

(유형별 비율) 독립형 29.8%, 유목형 35.7%, 고립형 11.1%, 위기형 23.4%로 자발적 유형(독립+유목형)이 65%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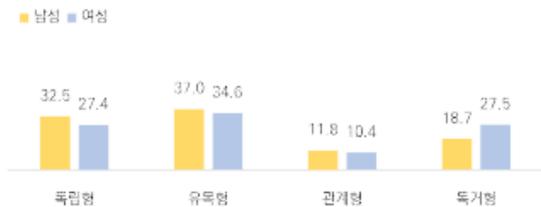
(성별) 남성은 유목형(37.0%), 독립형(32.5%)이 많고, 여성은 사별 노인이 많아서 위기형(27.5%)이 많아

(청년층) 자발적 유형(독립형+유목형)이 95%로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중 불안정한 유목형(60%)이 2배 가까이 많아

(중장년층) 독립형(37.0%)이 가장 많고, 유목형(23.1%), 고립형(20%), 위기형(20%)이 고르게 분포해 세대 내 높은 이질성 확인

(노년층) 위기형(73.6%)이 대다수이지만, 자발적 유형(독립형+유목형)도 약 20%로 적지 않아

성별 1인가구 유형 분포(%)



연령별 1인가구 유형 분포(%)

구분	독립형	유목형	고립형	위기형
전체	29.8	35.7	11.1	23.4
20대	29.2	66.1	2.2	2.5
30대	50.5	40.6	5.5	3.5
40대	49.3	18.7	21.6	10.4
50대	23.9	18.2	28.6	29.3
60대	10.0	17.3	18.6	54.1
70대 이상	0.7	17.5	4.6	77.2

세대별 1인가구 유형 분포(%)



같은 세대 안에서도 우세 유형이 있지만 다른 유형도 존재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 변화도 예상할 수 있어

경제, 주거, 건강, 식생활, 관계망, 1인가구 지속의사로 특성 비교

	독립형 (자발+안정형)	유독형 (자발+불안정형)	고립형 (비자발+안정형)	위기형 (비자발+불안정형)
일자리	안정 (직장인 다)	불안정 (취준생, 불안정고용, N잡러 다)	안정 (직장인, 자영업자 다)	불안정 (비경험, 단순근로가능자 다)
소득	안정 (월평균소득 225만원)	불안정 (월평균소득 217만원)	잠재적 불안정 (월평균소득 231만원 最多) (사적이전 제공 9.7% 最多)	불안정 (월평균 소득 最少, 주거비+식비 비율 40%)
주거	안정 (아파트 다)	불안정 (아파트 少, 고시원 다)	안정 (아파트 다)	양극화 (아파트 다, 고시원 다)
건강	가장 양호	양호	약간 불안정 (신체/정신 건강 나빠짐 高)	가장 취약 (신체/정신 건강 악화 비율 最高)
식생활	취약 (끼니 거름, 대충 먹음 다)	취약 (끼니 거름, 대충 먹음 다)	보통 (끼니 거름, 대충 먹음 中)	양호 (끼니 거름, 대충 먹음 少)
일상 불편	식사준비/청소/세탁(살림 미숙)		병원 동행(고립)	관공서 업무/집수리/장보기/ 병원동행(신체 허약)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 13.0% 외로움 57.9%(最低)	사회적 고립도 14.0%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6.0%(最高)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2.6% 외로움 66.7%(最高)
1인가구 지속의사	유동적 (지속 27.8%, 결혼 48.0%)	유동적 (지속 28.2%, 결혼 52.1%)	반영구적(사회적 영향) (지속 44.8%, 결혼 17.0%)	반영구적(연령 영향) (지속 57.6%, 결혼 7.5%)

경제 : 유형별로 일자리/소득 지원 필요성과 세부 종류가 달라

	독립형 (자발+안정형)	유독형 (자발+불안정형)	고립형 (비자발+안정형)	위기형 (비자발+불안정형)
일자리	안정 (직장인 다)	불안정 (취준생, 불안정고용, N잡러 다)	안정 (직장인, 자영업자 다)	불안정 (비경험, 단순근로가능자 다)
소득	안정 (월평균소득 225만원)	불안정 (월평균소득 217만원)	잠재적 불안정 (월평균소득 231만원 最多) (사적이전 제공 9.7% 最多)	불안정 (월평균 소득 最少, 주거비+식비 비율 40%)
주거	안정 (아파트 다)	불안정 (아파트 少, 고시원 다)	안정 (아파트 다)	영국학 (아파트 다, 고시원 다)
건강	가장 양호	양호	약간 불안정 (신체/정신 건강 나빠짐 高)	가장 취약 (신체/정신 건강 악화 비율 最高)
식생활	취약 (끼니 거름, 대용 식품 다)	취약 (끼니 거름, 대용 식품 다)	보통 (끼니 거름, 대용 식품 中)	양호 (끼니 거름, 대용 식품 少)
일상 불편	식사준비/청소/세탁(살림 미숙)		병원 동행(고립)	관공서 업무/접수리/장보기/ 병원동행(신체 허약)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 13.0% 외로움 57.0%(最低)	사회적 고립도 14.0%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6.0%(最高)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2.6% 외로움 69.7%(最高)
1인가구 지속의사	유동적 (지속 27.8%, 결혼 48.0%)	유동적 (지속 28.2%, 결혼 52.1%)	반경구체(사회적 영합) (지속 44.8%, 결혼 17.0%)	반명구체(안정 영합) (지속 67.8%, 결혼 7.5%)

고용보다는 금융생활 지원
(자산형성, 재테크)

취업/창업 지원
(고용불안정 해소)

고용보다는 금융생활 지원
(사적이전 부담 완화)

공공일자리 지원
(생활비 부담 완화)

주거 : 독립/고립형은 형평성 제고, 유목/위기형은 취약층 지원 집중

	독립형 (자발+안정형)	유목형 (자발+불안정형)	고립형 (비자발+안정형)	위기형 (비자발+불안정형)
일자리	안정 (직장인 다)	불안정 (취준생, 불안정고용, N잡러 다)	안정 (직장인, 자영업자 다)	불안정 (비정규, 단속근로가능자 다)
소득	안정 (월평균소득 225만원)	불안정 (월평균소득 217만원)	정자적 불안정 (월평균소득 231만원 많음) (시정 이전 재고 9.7% 많음)	불안정 (월평균 소득 불균, 주거비+식비 비율 40%)
주거	안정 (아파트 다)	불안정 (아파트 少, 고시원 다)	안정 (아파트 다)	양극화 (아파트 다, 고시원 다)
건강	가장 양호	양호	약간 불안정 (신체/정신 건강 나빠짐 많)	가장 취약 (신체/정신 건강 악화 비율 높음)
식생활	취약 (끼니 거름, 대충 먹음 다)	취약 (끼니 거름, 대충 먹음 다)	보통 (끼니 거름, 대충 먹음 다)	양호 (끼니 거름, 대충 먹음 少)
일상 불편	식사준비/청소/세탁(살림 마숙)		병문 동행(고립)	관공서 업무/접수리(장보기/ 병원동행(신체 허약)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 13.0% 외로움 57.9%(높음)	사회적 고립도 14.0%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6.0%(최고)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2.6% 외로움 60.7%(높음)
1인가구 지속의사	유동적 (지속 27.6%, 결혼 48.0%)	유동적 (지속 28.2%, 결혼 52.1%)	반경구적(사회적 영합) (지속 44.8%, 결혼 17.0%)	반영구적(인력 영합) (지속 57.6%, 결혼 7.5%)

다인가구 대비 형평성 제고

주거취약층 지원 필요

다인가구 대비 형평성 제고

주거취약층 지원 필요

건강과 식생활 : 독립/유목형은 식생활, 위기형은 건강 지원 강화

	독립형 (자발+안정형)	유목형 (자발+불안정형)	고립형 (비자발+안정형)	위기형 (비자발+불안정형)
일자리	안정 (직장인 다)	불안정 (취준생, 할안정고용, N잡러 등)	안정 (직장인, 자영업자 등)	불안정 (비정규, 단순근로가능자 등)
소득	안정 (월평균소득 226만원)	불안정 (월평균소득 217만원)	경제적 불안정 (월평균소득 201만원 최다) (지역이전 체공 9.7% 최다)	불안정 (월평균 소득 최다, 주거비+직비 비율 40%)
주거	안정 (아파트 등)	불안정 (아파트 등, 고시원 등)	안정 (아파트 등)	영국화 (아파트 등, 고시원 등)
건강	가장 양호	양호	약간 불안정 (신체/정신 건강 나빠짐 高)	가장 취약 (신체/정신 건강 악화 비율 最高)
식생활	취약 (끼니 거름, 대중 먹음 다)	취약 (끼니 거름, 대중 먹음 다)	보통 (끼니 거름, 대중 먹음 中)	양호 (끼니 거름, 대중 먹음 少)
일상 불편	식사준비/청소/세탁(살림 마춤)		병원 동행(고립)	관공서 업무/집수리/장보기/ 병원동행(신체 허약)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 13.0% 외로움 57.0%(최저)	사회적 고립도 14.0%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8.0%(最高)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2.6% 외로움 66.7%(最高)
1인가구 지속의사	유동적 (지속 27.8%, 결한 48.0%)	유동적 (지속 28.2%, 결한 52.1%)	반영구적(사회적 영향) (지속 44.8%, 결한 17.0%)	반영구적(전혀 영향) (지속 57.6%, 결한 7.5%)

▼
식생활 지원 필요
(건강 지원 필요 낮아)

▼
식생활 지원 필요
(건강 지원 필요 낮아)

▼
선제적 건강 관리,
식생활 지원 필요

▼
건강 관리 지원 필요
식생활 지원 필요 낮아

일상 불편/사회적 관계망 : 자발형은 역량 강화, 비자발형은 정서 교류 필요

	독립형 (자발+안정형)	유목형 (자발+불안정형)	고립형 (비자발+안정형)	위기형 (비자발+불안정형)
일자리	안정 (직장인 다)	불안정 (취준생, 불안정고용, N잡러 다)	안정 (직장인, 자영업자 다)	불안정 (비정규, 단순근로가능자 다)
소득	안정 (월평균소득 225만원)	불안정 (월평균소득 217만원)	상대적 불안정 (월평균소득 231만원 最多) (사적이전 제공 9.7% 最多)	불안정 (월평균 소득 最少, 주거비+식비 비율 40%)
주거	안정 (아파트 다)	불안정 (아파트 少, 고시원 다)	안정 (아파트 다)	양극화 (아파트 다, 고시원 다)
건강	가장 양호	양호	약간 불안정 (신체/정신 건강 나빠짐 高)	가장 취약 (신체/정신 건강 악화 비율 最多)
식생활	취약 (끼니 거름, 대용 먹음 다)	취약 (끼니 거름, 대용 먹음 다)	보통 (끼니 거름, 대용 먹음 中)	양호 (끼니 거름, 대용 먹음 少)
일상 불편	식사준비/청소/세탁(살림 미숙)		병원 동행(고립)	관공서 업무/집수리/장보기/ 병원동행(신체 허약)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 13.0% 외로움 57.9%(最低)	사회적 고립도 14.0%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6.0%(最高) 외로움 62.5%	사회적 고립도 12.6% 외로움 66.7%(最高)
1인가구 지속되사	유동적 (지속 27.8%, 결혼 48.0%)	유동적 (지속 28.2%, 결혼 52.1%)	반영구적(사회적 영향) (지속 44.8%, 결혼 17.0%)	반영구적(인명 영향) (지속 57.6%, 결혼 7.5%)

단순 서비스 제공보다는,
살림 역량 강화에 초점

단순 서비스 제공보다는,
살림 역량 강화에 초점

사회적 고립 해소 집중
(병원동행 지원 만들기 지원)

거동 불편+외로움 결합 해소
(서비스+말벗)

삶의 만족도는 단계적 차이, 정책 수요는 분야별 차이 드러내

(유형별) 전 분야에 걸쳐 독립형, 유독형, 고립형, 위기형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 단계적 차이 확인

(유독형-고립형) 만족도가 대체로 비슷한데 건강, 가족관계, 개인 관계 등에서 고립형이 낮아

(시사점) 자발성, 안정성은 적절한 분류 기준, 1인가구는 안정성 (경제/주거)보다 자발성(사회적 관계)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어

(전체) 대체로 경제자립 수요가 높고, 관계망 수요가 낮아

(독립형) 다른 분야 결핍이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자립에 수요 집중

(유독형) 경제, 주거 수요가 높아 유형 특성과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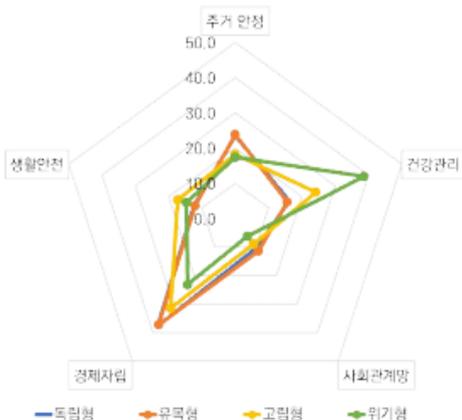
(고립형) 경제, 주거 수요 높고, 관계망은 유형 특성과 불일치

(위기형) 경제 수요 낮고 건강관리 수요 높아, 유형 특성과 일치

1인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도 비교(10점 만점)



1인가구 유형별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분야 비교(%)



01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1 조사 개요
- 1.2 기초 분석
- 1.3 세대별 분석
- 1.4 유형화 분석
- 1.5 한계와 과제

경제, 주거, 안전 분야에서 일부 지표가 뚜렷하게 양호한 결과 보여

(경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전국 1인가구 대비 빈곤율은 낮게 나타나

(주거)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1인가구 대비 주택유형(비주거 적고, 단독주택 많음), 점유형태(전세/자가 많고, 월세 적음)가 양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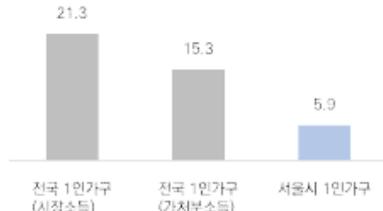
(안전) 서울서베이 서울시 전체가구 대비 야간 골목길 보행 두려움이 더 낮아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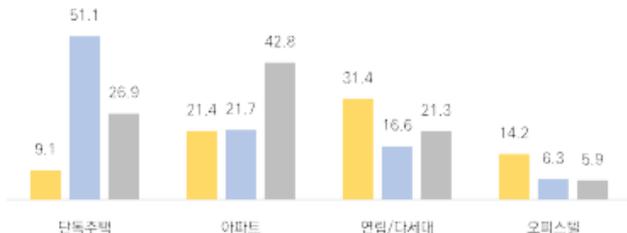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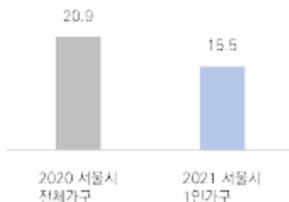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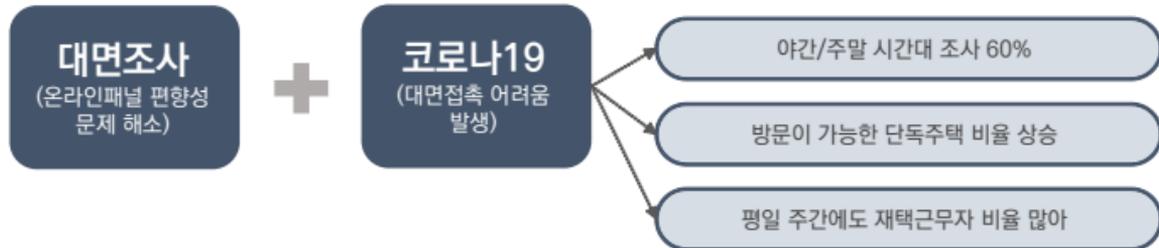
■ 2017 1인가구 ■ 2021 1인가구 ■ 2020 전체가구



야간 골목길 보행 두려움(%)



조사 방식과 코로나19로 특정 1인가구가 과대 표집된 것이 원인



2017년 1차 실태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본설계를 했음에도
고용, 소득, 주거 수준이 높은 1인가구가 더 많이 표집

실태조사 응답자 1차 접촉 시간대(%)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주말 주간	주말 야간
전체	40.1	38.8	9.8	11.2
청년	36.0	43.7	9.5	10.8
중장년	41.3	37.6	9.8	11.3
노년	45.1	32.3	10.7	11.9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경험(%)

	사례수	있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3079)	18.09	62.97	18.93
청년	(1504)	26.35	64.10	9.55
중장년	(1006)	14.66	69.21	16.14
노년	(568)	2.30	48.96	48.74

취약성보다는 보편성에 중점, 국가승인통계와 비교는 신중하게 활용

결과 해석 및 활용

김수영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전문가 자문의견

- 본 조사 결과는 1인가구 주류화, 보편화로도 해석 가능
-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다인가구 대비 차이 설명 가능
- 1인가구 정책은 시혜적 방식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주류화에 맞게 정책적 관점 재설정 필요

김영정 박사

- 2017년 조사와는 표집방법 유사하므로 직접 비교가 가능
- 2017년 대비 인식, 만족도 등이 높아진 것은 타당하고, 차이를 강조할 필요 있어

다른 통계와 비교

최현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자문의견

- 표본설계(규모, 할당, 표집)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통계와 비교는 신중해야
- 향후에는 통계청 협조를 구해 국가승인통계와 표집 차이를 줄이는 방안 제안

박미선 박사(국토연구원)

- 주거실태조사보다 주거 수준이 높은 것은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 이러한 문제는 서울청년패널에서도 발생(지자체 단위 종합 분야 조사의 한계)

이원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와 차이를 고려해 해석 필요



보고서, 보도자료에 한계와 원인 명시

취약 1인가구 특성은 주거 심층조사로 보완

국가통계 비교는 신중하게 선별

차이가 큰 항목은 비교 자체
타동계 서울시 1인가구 결과 함께 제시

서울시 1인가구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

서울시 1인가구 삶의질 지표체계 및 활용방안 개발
(5월 착수 예정)

0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주거심층조사 분석 결과

- 2.1 조사 개요
- 2.2 분석 결과
- 2.3 시사점과 정책과제

5개 밀집지역 조사, 중장년 1인가구 중심으로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지역선정)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및 사전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5개 구 및 행정동 조사 지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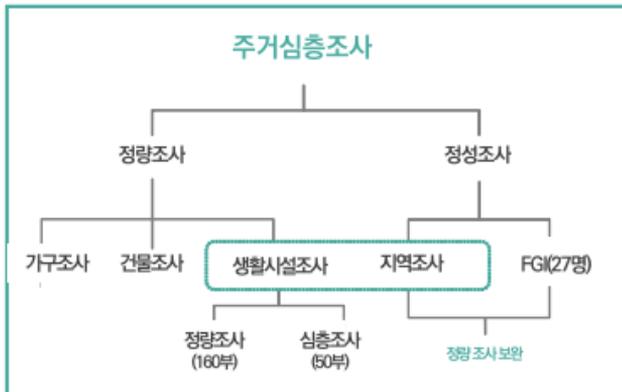
(조사표집) 지역별로 중장년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할당, 주택형태나 집계구 표본에 따른 표집이 아니므로 표집의 한계

(조사방법) 그동안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중장년 중심 조사. 하지만 건물 잠겨있거나 관리자있는 주택 접근 어려웠고 수급가구를 제외한 일하는 가구 조사 어려움. 지하, 옥상, 오피스텔, 고시원 등 1인가구 거주 추정되는 건물, 주택 방문하여 대면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분석대상) 청년, 중장년, 노년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조사의 핵심 대상인 중장년 중심으로 분석 결과 제시

지역 구분	가구조사		생활사실조사		건물 조사 (개)
	응답자 (명)	중장년 (명)	정량 조사	정성 조사	
중장년 밀집지역	100	56	30	10	20
	100	62	30	10	20
청년+ 중장년 혼합지역	100	58	40	10	20
	100	46	30	10	20
비교군	101	42	30	10	20
합계	501	264	160	50	100

주요 분석 대상



사전 지역조사로 대상지 현황 파악, 조사 대상자와 시설 선정

(대상지 현황 파악) 길, 공원, 1인가구 거주 주택, 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식당, 세탁소, 인력소개소) 등 대상지의 주요 현황 파악
 (가구/건물조사 대상 선정) 지역 유관 민/관 기관 소개와 지역조사를 종합해서 가구조사, 건물조사 대상 선정
 (결과물 시각화) 대상지 주요 시설과 조사 대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로 시각화(mapping)



0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주거심층조사 분석 결과

- 2.1 조사 개요
- 2.2 분석 결과
- 2.3 시사점과 정책과제

밀집지역 중장년 1인가구 소득,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

(낮은 소득) 밀집지역 중장년의 월평균 총소득은 비교군에 비해 1/3에 그치고 절반 이상(57.6%)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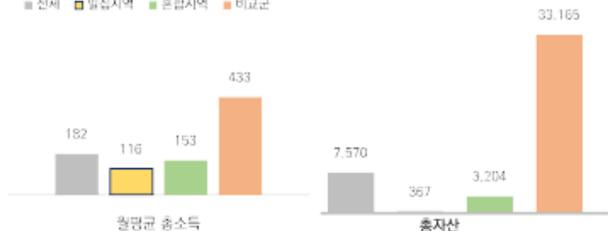
(낮은 자산) 밀집지역 중장년의 평균 자산은 3백 여만원에 불과, 자산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2%

(부채부담) 부채가 있는 밀집지역 중장년은 16.1%에 불과하지만, 제3금융권의 부채비율이 높아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중장년 264명 분석: 밀집지역 중장년 118명(44.7%), 혼합지역 중장년 104명(39.4%), 비교군 중장년 42명(15.9%)

중장년 1인가구 소득 및 자산(만원)

■ 전체 ■ 밀집지역 ■ 혼합지역 ■ 비교군



중장년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중장년 1인가구 부채보유 비율·종류(%)

■ 전체 ■ 밀집지역 ■ 혼합지역 ■ 비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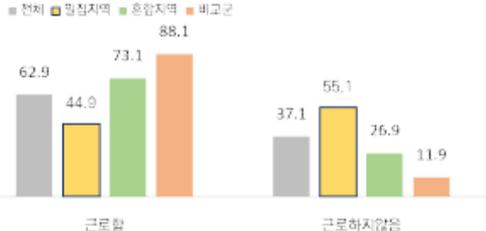
밀집지역 중장년 절반이 일하지 않고, 일하는 중장년 다수가 불안정 노동자

(낮은 종사상 지위) 밀집지역 중장년 84.9%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는 11.3%에 불과, 비교군 중장년의 44.4%와 대조 (근로 상태) 지난 1주일 동안 일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 이상(55.1%)으로, 근로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장년이 다수 (경제적 불충분) 다른 지역에 비해 밀집지역 중장년 83.9%가 본인 소득으로 지출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노후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아

중장년 1인가구 종사상 지위(%)



지난 1주일 근로여부(%)



경제적 불충분(%)



[지출 충당 어려움] 지난 1년간 소득으로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는지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지금 불충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사고, 질병)에 대비할 여유 자금이 충분한지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노후 대비 불충분]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밀집지역 중장년 96.6% 고사원여관여인숙 거주, 점유형태는 99.1%가 월세

(주택유형) 중장년 70.5%가 고시원 등 비주거 주택에 거주하고 밀집지역 중장년은 96.6%로 대부분 고시원, 여관, 여인숙에 거주
 (점유형태) 밀집지역 중장년의 99.1%가 월세 거주, 그 중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가 91.5%, 이에 반해 비교군 중장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자가 소유
 (주택면적) 고시원 등 주택면적은 다른 지역과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밀집지역 중장년이 사는 집의 면적이 가장 협소
 (주거비 부담) 비교군의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지만, 밀집지역 중장년 평균 소득(116만원)과 비교했을 때, 주거비 부담 높을 것으로 예상

중장년 1인가구 주택유형(%)

■ 전체 ■ 밀집지역 ■ 혼합지역 ■ 비교군



중장년 1인가구 주택 점유형태(%)

■ 전세 ■ 밀집지역 ■ 혼합지역 ■ 비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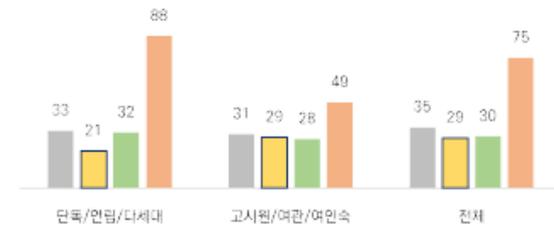
중장년 1인가구 주택유형별 주택면적(m²)

■ 전체 ■ 밀집지역 ■ 혼합지역 ■ 비교군



중장년 1인가구 주택유형별 월세(만원)

■ 전세 ■ 밀집지역 ■ 혼합지역 ■ 비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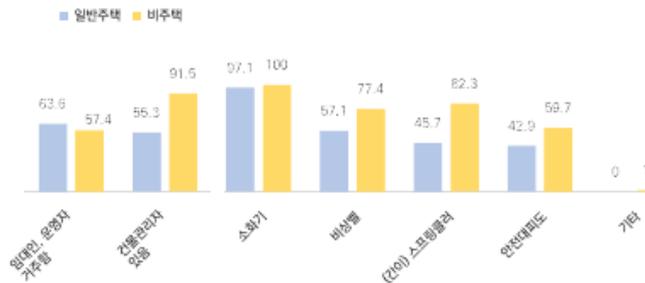
일반주택에 비해 비주택의 화재안전, 범죄안전 양호하지만, 밀집도가 문제

(화재안전) 비주택의 91.5%가 건물관리자가 있으며 화재안전시설이 일반주택에 비해 잘 구비되어 있어

(주거안전) 전문 조사원의 조사 결과, 건물 외부 담장, 주차장, 지하실 등 비주택의 범죄취약요소가 없다는 응답 높아

(공용공간 보안) CCTV 등 공용공간 보안시설 역시 우편함, 택배보관함, 조명을 제외하고 비주택에 보안시설이 더 많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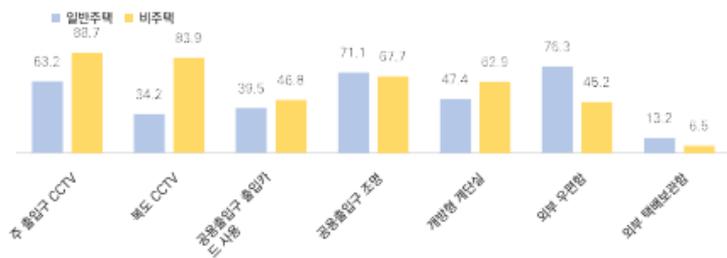
임대인, 건물관리자 유무와 화재안전시설 구비 정도(%)



건물 범죄 취약요소 없음 비율(%)



공용공간 보안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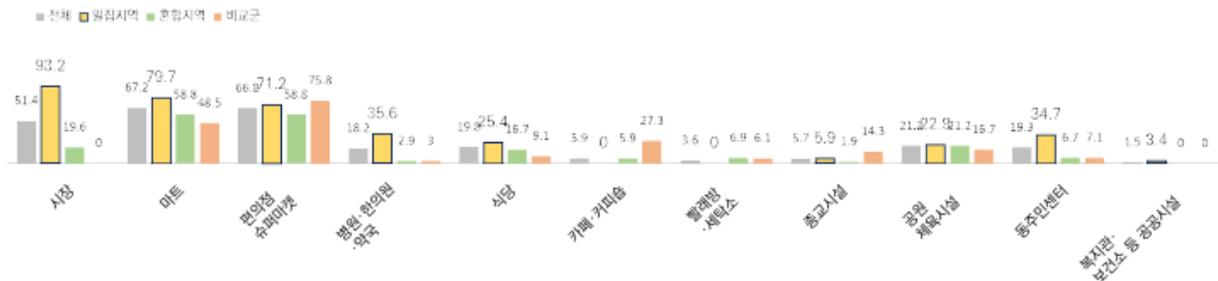
두시형 문과 건물 외관의 노출된 배관(강북구 수유/번1동)



밀집지역 중장년은 1인가구용 식자재점(74.4%), 커뮤니티 공간(20.5%) 선호

(이용시설) 대부분이 주1회 이상 시장을 이용하고, 다른 지역 중장년에 비해 의료기관(35.6%), 동주민센터(34.7%) 이용을 높게 나타내
(선호시설) 밀집지역 중장년의 74.4%가 1인가구용 식자재점 필요하고, 5명 중 1명은 커뮤니티 공간 선호

평균 주1회 이상 이용하는 시설(%)



현재 거주하는 동네에 1인가구를 위해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중장년 밀집지역 물가 저렴, 밀집지역임에도 1인가구 친화적 환경은 미흡

(소비) 밀집지역의 1인가구 주류, 간편식 많이 소비하고, 혼합지역, 비교군 지역에 비해 물가 저렴

(영업전략) 중장년 밀집지역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1인가구를 위한 상품, 메뉴 구성이나 매장 진열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낮아

생활시설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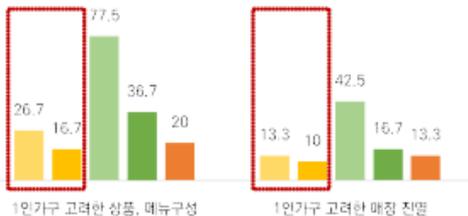
- 160개 생활편의시설 조사 + 50부 심층조사
- 거주가구 설문조사에서 주1회 이상 이용하는 생활시설 중심으로 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50.3%)/ 도소매업(21.4%)/ 기타 서비스업(23.3%)/ 부동산 및 임대업(5.0%)

1인가구 매출 상위 품목

- 마트·슈퍼 주류(36.8%) > 간편식(15.8%), 담배(15.8%)
- 식당(한식) 찜개류(43.3%) > 백반(30.0%) > 밥류(23.3%)
- 카페 아메리카노(92.3%)
- 편의점 담배(62.5%) > 간편식(31.3%) > 주류(6.3%)
- 부동산 원룸 월세(90.0%)

1인가구 대상 영업전략

■ 수유3동, 변1동 ■ 중화2동, 연목동 ■ 대학동 ■ 화암동 ■ 역삼1동



지역별, 주요 품목 평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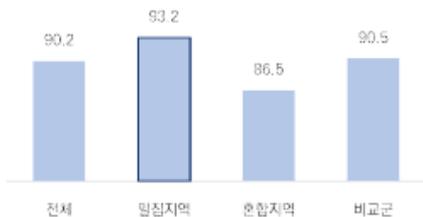
구분	단위	밀집지역		혼합지역		비교군
		강북구	중랑구	관악구	광진구	
비빔밥	1인분	6,125	6,250	6,750	6,167	7,167
기본 김밥	1인분	2,000	2,500	2,333	2,433	2,833
아메리카노	1잔	2,860	2,400	1,833	3,760	2,880
돼지고기	100g	-	1,500	1,200	3,160	3,137
남성커피	1회	9,000	10,000	12,000	12,500	18,000
PC방(회원)	1시간	1,000	-	733	1,000	2,000

밀집지역 중장년이 '살던 동네 계속 거주 의향' 가장 높아(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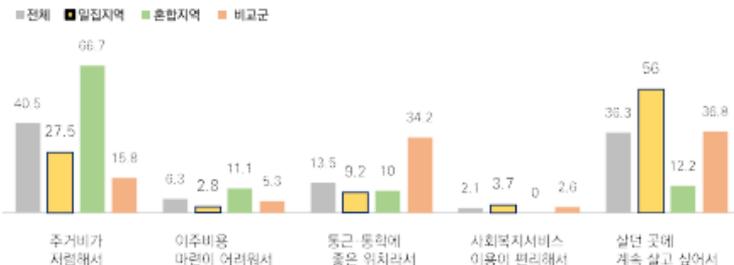
(계속 거주 의향) 밀집지역 중장년의 93.2%가 현재 동네에서 계속 살길 원하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기 때문

(계속 거주 원치 않는 이유) 밀집지역 중장년은 취약한 주거환경 때문에, 비교군 중장년은 직장 문제로 현재 동네에서 계속 거주 원치 않아

현재 동네 계속 거주 의사(%)



현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



현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은 이유(%)



밀집지역 중장년 3명 중 1명 이웃과 교류하고 동년배 1인가구와 힘든 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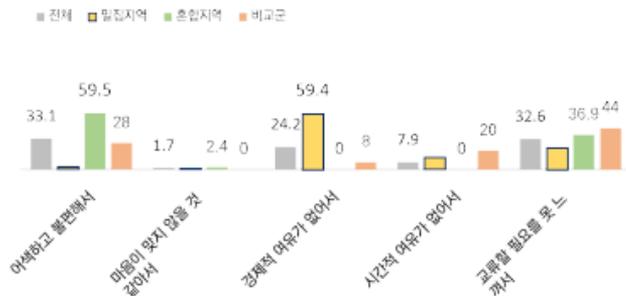
(교류이웃) 밀집지역 중장년의 29.7%가 동네의 이웃과 교류하고, 유사한 환경의 동년배 1인가구와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 상담, 조언 구해

(교류의향) 현재 이웃과 교류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웃과 교류할 의향도 밀집지역 중장년이 가장 높고, 교류하고 싶은 이유는 현재 교류 목적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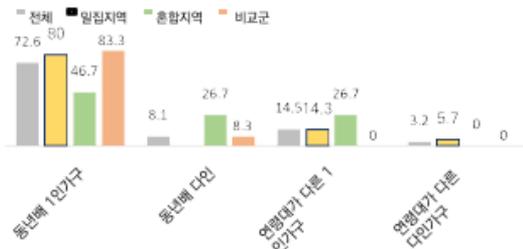
현재 동네에 교류하고 있는 이웃 여부와 교류의향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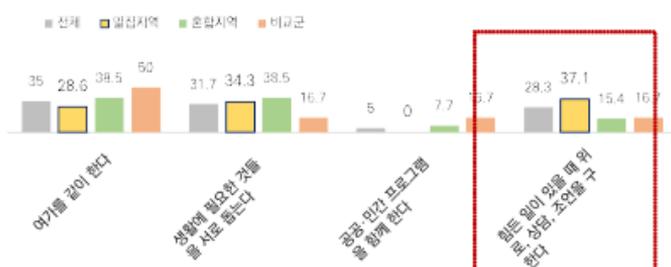
교류를 원하지 않는 이유(%)



교류하고 있는 이웃 유형(%)



이웃과 교류하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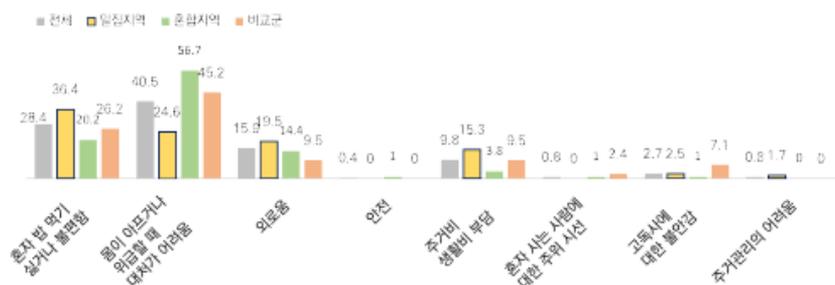
중장년 1인가구의 28.4% 혼밥 가장 힘들지만, 주말 저녁도 홀로 식사

(혼밥) 밀집지역 중장년은 주말 저녁 혼밥 비율이 가장 높아(93.2%), 1인가구여서 불편한 점도 혼밥이 36.4%로 가장 높아
(사회적 교류) 최근 3개월 이내 접촉한 사람은 친구, 이웃, 직장동료, 복지공무원 순인데, 없음이 30%여서 심각한 사회적 고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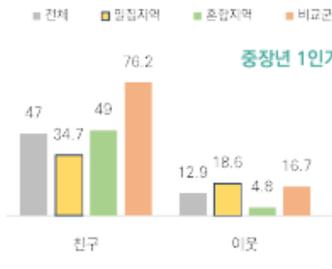
주말저녁 식사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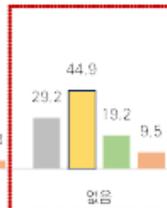
1인가구여서 불편한 점(1순위, %)



최근 3개월 이내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



중장년 1인가구의 3명 중 1명은 최근 3개월 내 접촉한 사람 없어 심각한 사회적 고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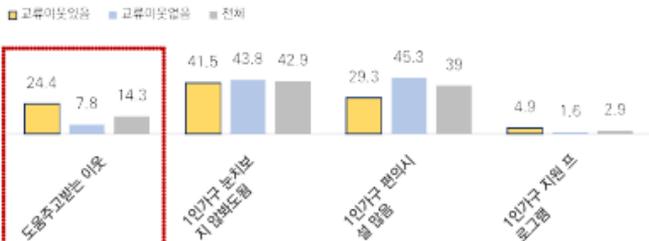
동네 이웃과 교류하는 중장년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만족도 더 높아

(동네 환경) 이웃과 교류하고 있는 중장년이 그렇지 않은 중장년에 비해 현재 동네가 1인가구가 살기에 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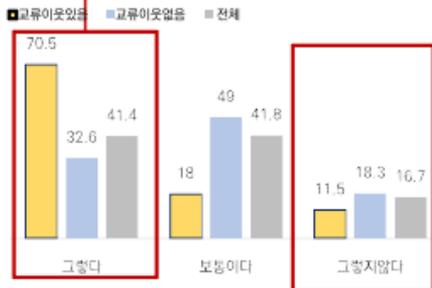
(동네환경 만족) 이웃과 교류하는 중장년일수록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이 있어 동네환경에 만족하고 교류없는 중장년에서 편의시설이 많은 영향 미처

(동네환경 불만족)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중장년일수록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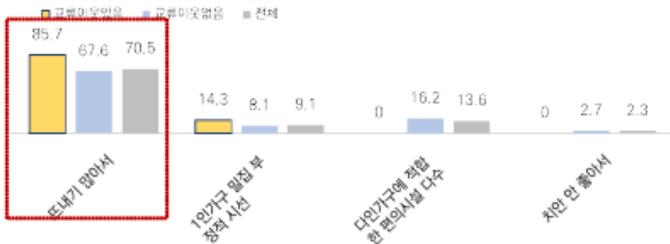
현재 동네가 1인가구 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현재 동네가 1인가구 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현재 동네가 1인가구에 부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공공임대주택 수요 높지만, 비용 부담으로 정책 접근에 장벽 높아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장년 1인가구의 33.7%가 공공임대주택 수요 있고 밀집지역 중장년의 수요가 가장 높아

(정책 수요) 주거복지프로그램 수요가 없다는 응답도 42.0%로 중장년 1인가구의 취약한 경제적, 주거 상태를 보았을 때 정책 접근성 낮을 것으로 판단

(정책 미충족)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밀집지역 중장년의 49.1%가 나머지 비용 부담으로 주거정책을 이용하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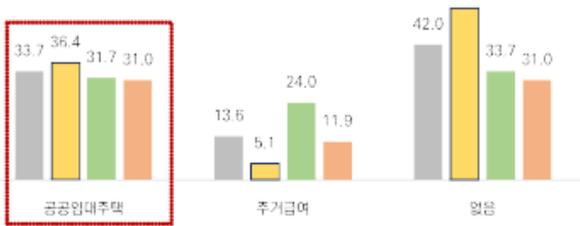
이용경험있는 주거복지프로그램(%)

■ 전체 ■ 밀집지역 ■ 혼잡지역 ■ 비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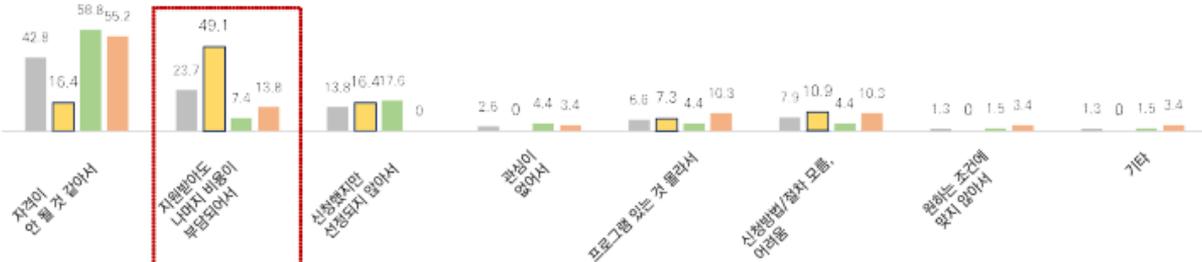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프로그램(%)

■ 전체 ■ 밀집지역 ■ 혼잡지역 ■ 비교군



필요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전체 ■ 밀집지역 ■ 혼잡지역 ■ 비교군



중장년 1인가구 55.1%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집 인근으로 이주 원해

(입주의사) 밀집지역 중장년의 공공임대주택 의사는 평균 이상, 입주 선호 이유는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지역) 밀집지역 중장년은 현재 살고있는 집이나 자치구 등 현재 지역 인근으로 입주의사를 밝혔고, 그에 반해 비교군은 서울시, 수도권까지 포괄

(비용부담) 밀집지역 중장년 다수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있지만, 입주하더라도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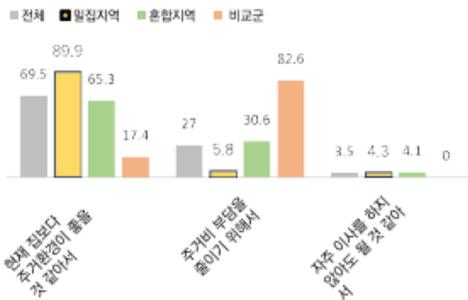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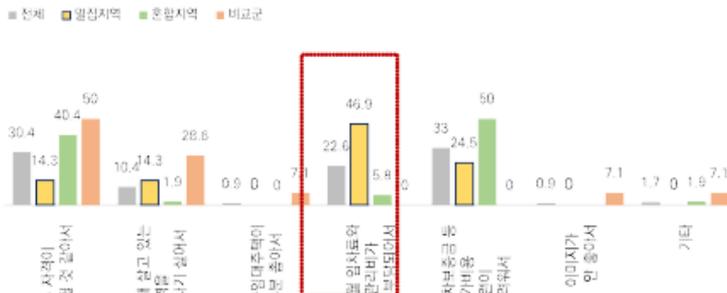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이주 가능한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원하는 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없는 이유(%)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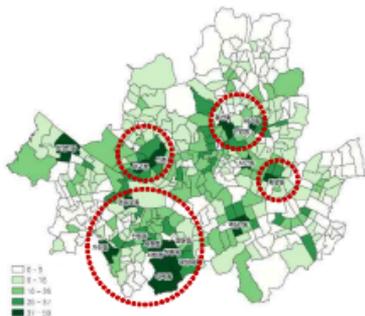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주거심층조사 분석 결과

- 2.1 조사 개요
- 2.2 분석 결과
- 2.3 시사점과 정책과제

1인가구 밀집지역은 세대별로 형성 원인, 밀집도, 생활실태가 달라

[서울시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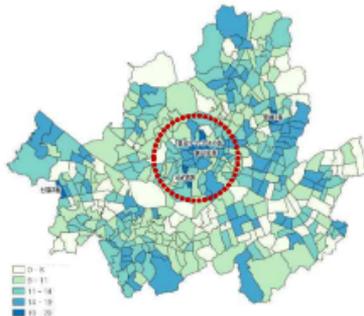


자발성/취향

접근성
편의시설
주거의 질

학교/직장 근처, 변화가
밀집도 가장 높아
거주기간 短
친구/동료 중심 관계망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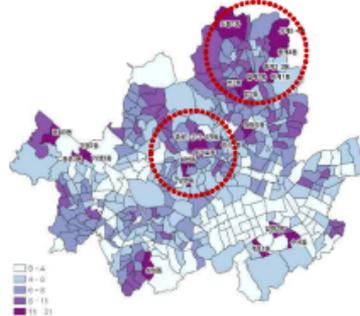


빈곤

주거비
대중교통 편의성
생활물가

저층주거지, 주거취약지역
밀집도 中
거주기간 中
사회적 고립 심해

[서울시 노년 1인가구 밀집지역]



장기 거주

지역 고령화
자녀 독립/배우자 사별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

오래된 주거 지역
밀집도 小
거주기간 長
가족/이웃 중심 관계망

중장년 밀집 원인은 빈곤, 탈출이 어려우므로 정주환경 개선 지원 필요

[서울시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



학교/직장 근처, 변화가
밀집도 가장 높아
거주기간 짧
친구/동료 중심 관계망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



저층주거지, 주거취약지역
밀집도 中
거주기간 中
사회적 고립 심해

[서울시 노년 1인가구 밀집지역]



오래된 주거 지역
밀집도 小
거주기간 長
가족/이웃 중심 관계망

경제와 주거가 매우 취약,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비용 부담으로 이용률 낮아

생활필수시설은 먹거리 관련 시설(마트, 시장, 식당) 이용빈도와 수요가 높아

이웃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가 취약하지만, 이웃이 있으면 또래 1인가구와 상담, 위로 등 높은 수준으로 협력
주거비, 이웃 관계망, 사회적 시선 등의 이유로 밀집지역 지속 거주 의사가 높고, 자력으로 주거상황 이동을 쉽지 않아

경제, 주거, 이웃관계망을 연계한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필요